

“광주·전남, 탄소중립·디지털전환 선제 대응 필요”

광전연 '산업·기업 정책방향 대응' 신규 특별법 발효·에타 조사 계획 전략산업 관련 지원센터 구축 특구 지정에 적극 대처해야

탄소중립 및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되는 가운데, 정부 정책에 부합한 선제적 대응 및 연계전략 마련과 함께 신규 특별법 발효 등에 따른 지역 차원의 활용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5일 '광주전남 정책브리프'의 보고서 '2022년도 정부 산업·기업 지원정책 방향과 광주전남의 대응'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업무계획에 따른 지역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 정책동향을 집중 분석하고 광주·전남의 대응방향과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에너지·산업의 대전환을 이끌기 위해 산업구조 저탄소 혁신과 주력산업 고부가 혁신산업, 미래산업 창출, 지역 내 창업·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에 주력할 계획

이다. 광주전남연구원 박용희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도 광주·전남의 산업·기업 분야를 이끌 3대 정책방향으로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관련 국가사업 연계 강화, ▲신법령 발효·에타당성조사 계획 등 신규 도입될 정책에 대한 선제 대응, ▲기 확보된 기반은 연계·협력 강화에, 부족한 인프라는 투자유치에 주력하는 '2트랙 전략'을 제안했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구체화할 우선 과제로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등 신규로 발효되는 특별법의 지역적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역에 미칠 위협요인을 최소화하

고 새로운 기회요인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광주전남이 공동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또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한 지역혁신주체 간 기획연구를 추진해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대상과 성격을 유형화한 전담 TF팀을 구성할 것"을 주문하며, 광주전남 전략산업 추진을 위해서는 ▲광주전남 지역산업진흥계획 공동수립, ▲지역대학·기업 협력을 통한 국가 대형연구시설 유치, ▲정부 지원센터 구축 및 특구지정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장애인스포츠 복지 확충 체육센터 건립·실업팀 지원

광주시가 장애인 스포츠 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생활권 내 장애인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반다비 체육센터 3곳이 광주에서 건립되고 있다. 다른 특·광역시에서는 대구(2곳)를 빼고는 모두 1곳씩 건립 중이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 우선 이용을 보장하되, 비장애인과 함께 사용하는 공공 체육시설로 1곳당 국비 40억원이 지원된다. 복구 센터는 오는 6월, 남구 센터는 내년 4월, 서구 센터는 2024년 완공 예정이다. 광주시는 또 자치구 장애인 스포츠 실업팀 창단 시 지방비 부담액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에서는 탁구, 양궁, 사격 등 시정 소속 3개 장애인 실업팀만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고용 확대, 국내외 대회 참가를 통한 위상 제고 등 효과가 있으나 민간에서는 실업팀 창단에 소극적인 실정이다. 장애인 스포츠 강자이 용된 지원 사업도 확대된다. 광주시는 올해 1억 2200만원을 투입해 1인당 월 8만원에서 8만 5000원으로 지원액을 늘렸다. 태권도, 배드민턴, 수영 등 80개 가맹 시설이 참여하며 소득 요건도 폐지해 참여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31일까지 광주상생카드 점검

단속반 현장점검·신고센터 운영

광주시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인 '광주상생카드'에 대해 일제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광주상생카드로 일상회복지원금 등을 지급해 상품권 발행이 확대된 데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건전유통과 이용 정착을 위해 실시한다. 광주시는 운영 대행사인 광주은행과 협업해 합동단속반과 주민신고센터(613-3722, 239-6102)를 운영하고 가맹점별 판매 현황을 분석해 특정가맹점에서 고액결제 가 다수 이뤄지는 등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에 대해 현장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사행산업,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을 영위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수수료를 올려 받는 등의 상품권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을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15일 오전 광주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야외광장에서 직원들과 이용자들이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노란색·파란색 풍선과 전방반대 피켓을 들고 세계평화기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 임시 개원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에 산모실 5실 규모

전남도가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이 15일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을 임시 개원했다.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은 현대여성아동병원 4층에 211.7㎡ 규모로, 산모실 5개실, 좌욕실 2개실을 갖췄다. 사전 예약해 이용할 수 있다. 오는 2024년 2월까지 임시로 산모실 5실을 운영하고, 2024년 3월 산모실 10실을 추가한 15실 규모로 정식개원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2015년 전국 최초로 해남 종합병원에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을 설치한 이래 2018년 2호점을 강진의료원에, 2019년 완도대성병원에 3호점을 설치했으며, 2020년 나주 빛가람종합병원에 4호점을 설치했다. 이번에 5호점이 임시 개원하면서 전남도는 권역별 산후조리망을 완성하게 됐다. 전남 모든 지역에서 30분 이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이 가능해진 셈이다. 이용료는 2주에 154만원으로 도내 민간조리

원 이용료보다 16% 저렴하다. 둘째아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 등 취약계층은 70% 감면혜택이 있어 46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저렴한 이용료와 수준 높은 서비스, 깨끗한 시설로 도민에게 호평을 받는 전남 공공산후조리원은 2015년 1호점 개원 이래 지금까지 2577명의 산모가 이용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전남지역 출생아 8567명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904명으로 10명 중 1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나무 나눠주기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광주시는 "제77회 식목일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는 그동안 현장에서 목목을 나눠주며 나무 심기에 시민 참여를 이끌어왔지만,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2년간 행사를 취소했다. 이번 나무 나눠주기는 시민들의 나무 심기 참여와 침체한 나무 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로 선착순 2천 명에게 2그루씩 지급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휴대폰 번호 1개로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에게는 문자 쿠폰이 전송되며 문자 쿠폰은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호남조경수 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나무 시장에서 나무 2그루로 교환할 수 있다. 접수번호가 흡수일 경우 흡수일에, 짝수일 경우 짝수일에 교환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경우 격리에서 해제된 후 방문해야 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서광주농협 advertisement with logo, slogan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and list of services including NH Bank, NH Health Insurance, and various branches.